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8.28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英, 런던 시장에 차량돌진테러 예방 장애물 설치
  - 8.20 현지언론은 런던의 유명 야외 시장인 '브로드웨이 마켓' 주변에 차량돌진 테러 예방을 위한 볼라드(bollard) 약 100여 개를 설치했다고 보도
- 英, '맨체스터 자살폭탄 테러\*' 관련자 종신형 선고
  - 8.20 런던 형사법원은 '17년에 발생한 '맨체스터 테러사건' 주범의 동생인 「하심 아베디」에게 폭발물 제작 및 운반 등 테러 가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하였고, 최소 복역 형량은 55년이라고 발표
  - \* '17.5.22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(사망 22, 부상 116)

#### 미주

- 美, 자국민 참수 ISIS 조직원에게 사형未구형
  - 8.20 美 법무부는 '14년 미국인 기자 2명을 참수한 영국 국적 ISIS 대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형폐지국가인 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형은 구형하지 않겠다고 발표
  - \* 영국 대법원도 영국정부가 미국에 제공한 테러범의 정보사항이 美 법원의 사형판결에 활용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 표명
- 美, 로봇을 이용한 폭발물 탐지 시스템 개발
  - 8.24 美 육군 리서치연구소는 자율주행 로봇이 순찰을 통해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, 순찰 결과를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증강현실 안경에 표시하여 급조폭발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발표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필리핀, 술루주에서 연쇄 폭탄테러 발생

- 8.24 필리핀 남부 술루주 홀로섬의 2차례 연쇄 폭탄테러로 군인과 민간인 피해(사망 10명, 부상 40여명) 발생, 필리핀 당국은 테러 목표가 군인이었던 점에서 반군 아부사야프\*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
- \* 술루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ISIS 추종 반군 무장단체로 무장공격과 인질 납치 자행

### ○ 인도, ISIS 연계 테러 모의범 체포

- 8.21 인도 경찰은 뉴델리의 다울라 쿠안 지역에서 ISIS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모의 용의자 「무함마드 무스타킴」을 체포하고, 자살 폭탄조끼 2벌·사제폭탄(15kg)·권총 등 압수물을 분석하여 테러 목적과 대상 등을 수사중이라고 발표

## 중 동

### ○ 美 연합군, 대테러 軍기지 이라크 이양

- 8.23 이라크 현지언론은 ISIS 퇴치를 위해 조성된 美 주도 연합군의 바그다드 알타지 캠프 중 일부 기지가 이라크군에 이양되었으며, 다른 기지들도 차례로 이양 후 3년 안에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계획이 확인되었다고 보도

## 아프리카

### ○ 인터폴, 테러단체의 온라인 활동 경고

- 8.24 인터폴 대테러 아프리카 지부는 아프리카 13개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테러단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암호화된 앱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, 각국 경찰과 인터폴과의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발표

\* 인터폴 대테러 지부(Regional Counter-terrorism Nodes)는 테러 빈발지역에 위치하면서 대테러활동의 거점 역할 수행

프랑스 고속열차內 총격 테러

- '15. 8. 21 저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 중 이던 고속열차 안에서 테러범 「엘 카자니(25)」가 총기를 난사하여 승객 3명 부상
  - 당시 테러범은 AK-47소총 外 권총·휘발유병도 소지하고 있었으나, 총기 난사 직후 승객들의 제압으로 추가 피해는 경미
- 佛 검찰은 테러범이 체포 직후 “무장강도”라고 주장했음에도 △범행 직전 지하디스트 선전 동영상 시청, △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연락, △SNS上 ISIS 지지 사실을 확인하고 테러혐의로 기소
- 현지언론은 同人이 '14년 시리아에서 ISIS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, 과거 마약 거래 혐의로 3차례 체포된 바 있어 ‘생겐조약 (국경자유통과협정)‘ 회원국의 요주 인물로 관리되어 왔다고 보도

< 생겐조약(Schengen Acquis) >

- 유럽연합(EU)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으로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른 국가로 이동이 가능하며,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세관신고도 未 실시
  - \* '85년 독일 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 남부 생겐에서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선언한 데에서 유래, 現在 26개국 가입
-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에 대한 목적 외에도 가입국內에서 발생한 범죄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국의 경찰들이 생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범죄자, 행방불명자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범죄수사의 국경적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고 평가